

# 전주시 '겨울 바람막' 늘려나간다

### 북문승강장 등 4곳에 방한텐트 시범 설치키로... 탄소발열의자도 꾸준히 설치

여름철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을 위해 그늘막 쉼터를 설치했던 전주시는 겨울철에 주요 버스승강장에 칼바람을 피할 바람막이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달부터 오는 3월까지 올해 총 600만원을 들여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며 추위에 떨지 않도록 이용자가 많고 바람막이가 설치되지 않은 북문승강장, 안골승강장, 평화주공4단지, 근영여고 등 한옥형 승강장 4곳에 방한텐트를 시범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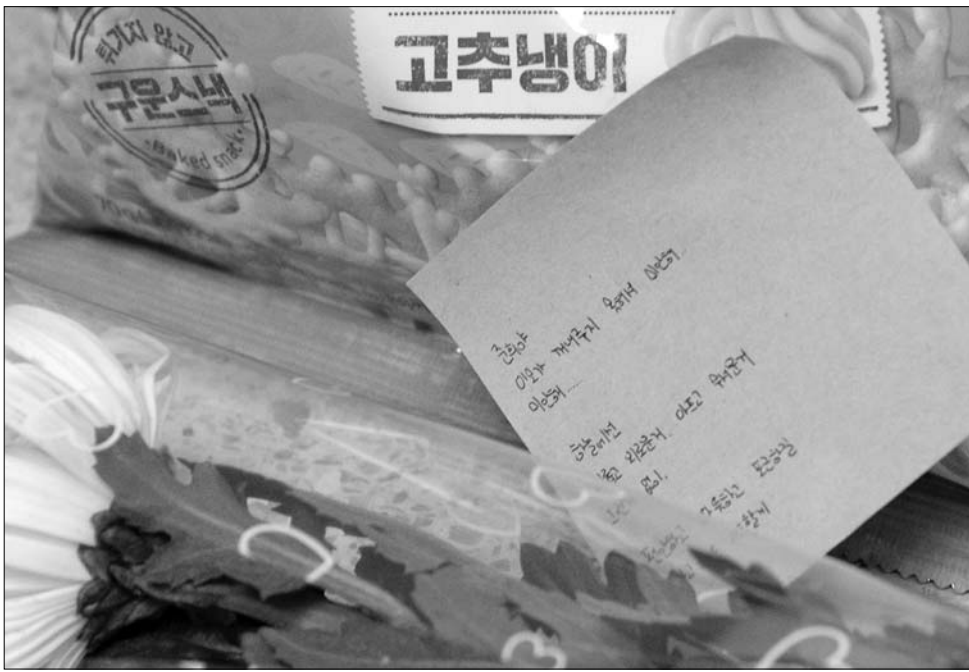
방한텐트가 설치되는 곳은 하루 평균 이용인원이 700~900여명에 달하지만 주변에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유동인구가 많지만 인도가 협소해 방한텐트가 설치될 경우 보행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지역은 시범운영 대상에서 제외됐다.

외곽 지역에 대해서는 버스를 타기 위해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주민들을 위해 기존 승강장 시설을 활용한 바람막이 보수공사를 연중 이어나갈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동서화동 부남마을·색장동·영동고덕아파트, 대성동도로교통공단 조촌동 용덕마을 등 5개 버스승강장에 바람막이가 설치된 승강장으로 바꿨다.

이와 관련, 시는 추위에 떨며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녹일 수 있도록 시내버스 승강장에 탄소발열의자도 꾸준히 설치해나가고 있다.

지난 2014년 일용근로자를 위한 쉼터(다가동 이씨간접집 옆 버스정류장)에 처음 설치됐던 탄소발열의자는



“준희야 이모가 미안해”

4일 고준희양의 아버지 고모(37)씨, 내연녀 이모(36)씨, 내연녀 어머니 김모(62)씨에 대한 현장점검이 진행된 가운데 준희양이 살았던 완주군 봉동읍 아파트 현관에 국화꽃과 메모가 놓여 있다.

현재 139개 승강장(188개)에서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려야 하는 시민들이 쉬어갈 그늘을 위해 한옥마을과 오거리광장, 충경로사거리, 풍남문 등 유동인구가 많은 총 11곳에 그늘막 쉼터(아트차일)를 설치했다.

이밖에, 시는 시민들의 민원은 끝까지

동행하며 해결해주는 ‘끝까지’ 동행 민원실을 운영하고, 전북대 규정문에서 덕진공원까지 500m 구간은 도로 턱이 없어 휠체어와 유모차 이용자 등 시민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무장애 나눔길’로 조성하는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세심하게 챙기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바람막이로 추운 바람을 피하고 탄소발열의자로 영영이가

따뜻한 승강장을 꾸준히 늘려 교통약자 등 모든 시민들이 겨울철 따뜻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것”이며 “민선6기 전주시의 핵심 가치는 사람이다. 기존의 행정 중심의 시정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공감하고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친절·공감행정을 펼쳐 가장 인간적인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 자동차세 연납시 10% 할인혜택

### 31일까지 납부해야

1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시민들은 전체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전주시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세액을 1월 중 미리 납부하면 10%할인 혜택을 받는 연납제도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세금체납을 방지하고 질세효과도 얻을 수 있다. 또 3월, 6월, 9월에 납부하는 시민들도 각각 납부시기에 따라 7.5%, 5%, 2.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이달 중 10% 할인된 금액

으로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신규 신청하기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31일까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차량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ARS(1588-2311)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상계좌(전북은행),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은행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동 주민센터와 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에서 신용카드를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할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소유기간 이외의 기간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차액을 환급해 준다. /채규남 기자

## 전주시 열린교육 바우처 수강생 모집

### 기초수급자 초·중학생 대상 학원수강료·교재비 지원

전주시가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학원비와 교재비를 지원한다.

시는 오는 11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열린교육 바우처 참여 학생들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사업 대상은 초등학교 120명과 중학생 120명 등 총 240명으로 신청 대상은 전주시의 국민생활기초수급자 가정의 초·중학생이다.

시는 선정된 학생들의 학원 수강료의 50%와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학원 수강료의 40%는 전주시와 협약을 체결한 가맹학원

에서 분담해 학생들은 10%의 비용만 부담하고 학원에 다닐 수 있다.

수강과목은 올해부터 정부의 공공육성사업법 적용 등으로 인해 국어와 영어, 음악과 미술, 제2외국어, 컴퓨터 등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수학은 지원대상 과목에서 제외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가구별 급여수준과 가구원 구성 형태, 자녀수 등을 평가한 후 오는 16일까지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학생들에게는 1년간 매월 학원비(초등학교 7만 5천원, 중학생 8만 5천원)와 교재비 2만원이 지원된다.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주소지 거주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채규남 기자

## 삼천 효자다리 경관조명 재정비

전주시가 설치 후 12년이나 경과하면서 경관조명이 고장 나 빛을 잃은 효자다리에 새 옷을 입혀주기 시작했다.

시는 지난 2006년 6월 설치된 조명 시설이 노후·부식되면서 빛을 잃었던 효자다리의 아름다움을 되찾아주기 위해 오는 2월부터 약 1억원의 경관조명 정비예산을 투입해 보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효자교의 측면조명 508개 중 고장이 나거나 부식돼 미관을 해치는 254개를 LED로 교체하고 아치조명 80개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다. /채규남 기자

## 김승환 전북교육감 ‘인사 개입’ 1심 ‘무죄’

### 전주지법 ‘피고인이 근평 수정 지시한 것 교육감 권한 범위 넘어선 것 아냐’

인사 부당 개입 의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4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이 근평 수정을 지시한 것은 법령이 정한 임용권자인 교육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니라고 본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만한 것이 없는 때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에 의거

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의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평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를 통해 해당 공무원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김 교육감이 특정 직

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정당한 직무권한을 벗어나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에 부당 개입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교육감에 대해 “피고인은 인사 평정에 관여할 권한이 없음에도 정당한 직무 권한을 벗어나 근무성적 순위 조사를 지시해 이는 위법한 직무 집행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삼민 기자

## ‘딸에게 보내는 엄마의 마음’ 이어져

### 상자유치원, 전주시에 200만원 후원금 기탁

2018년 새해에도 생리대를 구입할 돈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여성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전주시 ‘딸에게 보내는 엄마의 마음’ 사업에 참여하는 따뜻한 후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상자유치원(원장 최승립)은 4일 전

주시를 방문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전주지역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생리대를 지원하는데 써달라며 200만원의 후원금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한 후원금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마련한 비자회 수익금이다. /채규남 기자

#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선동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